

## 적과의 동침

(강박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강박 장애)

34세 된 B부인은 반복적이고 의례적(儀禮的)인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는 심한 강박 장애 환자이다. 필자는 것처럼 심한 강박 장애 환자를 대해 본 것이 처음이었다.

심한 증상이 나온 지 이 년 여 이상 되는 그녀는 몇몇 병원과 대학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 중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꽤 먼 지방에서 살고 있는 가정 주부였는데 ‘답답한 심정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과서적인 강박 증상은 다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밤중에 문을 잠그고 나서 잠이 들 때까지 십 여 회 이상 다시 열었다가 잠근 후에 그것을 흔들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있으면 만족스러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곤 하는 것 등의 증상이 그것이었다.

외출을 할 때면 잠근 문을 또 확인하느라 몇 번이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일쑤였고, 아파트 관리인이 “왜 그러느냐”고 자꾸 물으니 나중에는 그 눈을 피해 계단을 통해 5층까지 걸어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고도 한참을 걸어가다가 먼발치로 자신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또 빠진 게 없나 확인해 보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극적인 과정을 겪어 가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매일같이 화장실에서 손 씻기에만 대여섯 시간을 보내던 그녀는 나중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락에 군대식의 “일만, 이만, 삼만, 사만...”의 구령을 붙여 가며 오른손과 왼손을 문질러 냈다. “일만, 삼만, 오만”의 구령에 왼손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정해진 수순대로만 하면 “백만”에서는 당연히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단순하게 노래와 동작을 반복하면 ‘재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도중에 최소한 열 번 이상의 ‘엇박자’를 섞어 넣어야만 후련해진다고 했다. 그런 도중에도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을 털어내야 시원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털어냈다 싶으면 다시 비누를 문질러서 거품이 흡족할 만큼 적당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다.

수없이 반복한 끝에 ‘백만’에 도달했을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녀는 흐르는

물로 비누를 깨끗이 씻어 낸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가 원했던 대로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고 끝나면 그녀는 “엇박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대로 끝내면 또 재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본인은 이런 자신의 골똥한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어찌할 재간 이 없었다. 아침에 그런 의식(儀式)이 시작되면 아이들 도시락은 물론이고 아침 밥상조차 차릴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보다 못 한 남편이 나중에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정신병원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대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하지 못 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체중은 15kg이상이나 빠져서 나중에는 40kg이 채 못 되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키를 한 그녀는 외형은 흡사 젓가락과도 같았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울며불며 “살려 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항 강박제의 최대 용량에 도달할 만큼의 치료 기간도 다 채우지 못 한 채 치료를 포기하고 말았다.

강박 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강박증에 선택적으로 잘 듣는다는 약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약이 효험을 발휘하지 못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통 치료하는 의사는 함께 사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당사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잘 낫지 않는 강박증 환자의 가족은 참다 참다 결국에는 환자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정말 내가 미칠 지경이다”라는 하소연을 하곤 한다.

잘 낫지 않는 난치의 병과 싸우는 것은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똑같이 피를 말리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적과의 동침’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진드기 같은 강박 증상을 억지로 떼어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예 증상과 함께 살며 동고동락(同苦同樂)한다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